

서울·부산·광주·대구서 '남해여행' 온다

지난 9일부터 '광역시티투어' 운행

매주 주말 지역별로 14~20회 진행

기사입력 : 2024-03-12 08:09:10

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남해여행 광역시티투어가 운행된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주요 광역도시 관광객 유치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기리에 운행 중인 남해군 광역시티투어가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4년째를 맞는 남해군 광역시티투어는 지난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매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55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 광역시티투어는 매주 주말 지역별 14~20회 진행된다. 광주·대구·부산에서 출발하는 당일코스는 2만9000원, 서울 출발 1박2일 코스는 9만9000원이면 남해여행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한 전주 대신에 광주를 신규 운영지역에 넣었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2~3가지 특색 있는 남해여행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남해군 광역시티투어를 통해 남해를 여행한 관광객의 후기를 보면 뿌듯함이 느껴진다"며 "꽃피는 봄을 맞아 광역시티투어로 남해여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운영·예약 안내는 남해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namhaetour.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